

<2024년 3월 24일 주일말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말아라

본 문 :

<누가복음 7장 23절>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3월 넷째 주 주일입니다.

◎ 오늘의 주제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말아라.” 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신약, 현재까지, 시대마다 아주 중한 말씀입니다.

◇ 오늘 본문 성구 『누가복음 7장 23절』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바로 이전 성구인 <세례요한>의 것부터 먼저 들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8-22절』 입니다.

<눅 7:18-22>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저희가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앓은병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 <세례요한>은 헤롯왕의 이성 문제를 지적하여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세례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 주를 증거할 때는
예수님에 대해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옥에서 고통을 받으니 그로 인해
예수님에 대해 실망하고 실족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오실 자, 메시아가 당신이냐고
제자들을 통해 물었습니다.

이를 두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면 행한다고 했던 것을
하고 있다고 전해라.

앓은병이와 문둥이와 귀머거리 등 각종 병을 고치고,
신앙의 불구자와 눈먼 자를 다 고치고 있다고 전해라.
메시아가 오면 한다고 한 것을 지금 다 하고 있다고
요한에게 전해라.

그동안 요한은 내 앞에 와서 뭘 외치고 다녔냐.” 하셨습니다.

◇ <증거자>가 핵을 알고 전해야지, 분명히 모르고 증거하면
 자신이 증거자인데도 주를 제대로 모르니 실망합니다.
 목숨을 걸고 외쳐도
 주가 뭘 하러 왔는지 알고 외쳐야 됩니다.
 구약에서 ‘그가 오면 가난한 자, 병든 자를 고쳐 준다.’ 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그 시대 신앙의 소경들, 진리의 소경들을 눈뜨게 해 주시고
 각종 신앙의 병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 신약 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다시 올 때는 신랑으로 와서 예비된 신부를 맞고
 하나님의 뜻을 편다고 하였습니다(마 25:1-10).

새 시대에 오는 자는 구시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 와서
 그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 행합니다.
 그런데 모르니 실망하고 불신도 합니다.
 신앙의 소경들은 눈을 못 떴서 넘어지고
 낙심하고 실족하고 실종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치료해 줬는데도
 자기 사고의 병을 못 고쳤습니다.
 육신의 병도 고쳐 줬건만, 안타까운 운명이 되었습니다.

◇ 하나님이 보낸 자는 스스로 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행하십니다.

어떤 것은 행하고도 본인이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다가
이후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십니다.

전능자만 행하실 때 알고,

어떤 것은 보낸 자에게도 지난 후에 알려 주시고,
행한 후 그제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시대의 비밀이라 그리하십니다.

<야심작돌>도 처음에는

왜 그 돌을 <야심작돌>이라 하는지 모르다가
24년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야심작을 깨끗이 정리하니, 하나님이 그제야
<독수리 형상>이라고 깨우쳐 주셔서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상징, 독수리 형상이 있어서,
이래서 <야심작돌>이구나.’ 하고
비로소 온전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도 깨끗이 하니

그가 어떤 자인지, 왜 그인지 가르쳐 주어서
섭리사 45년 만에 더욱 알게 했습니다.

◎ 다음 말씀입니다.

◇ <구약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낸 자, 모세를 원망하고
그와 다투고 배신하고 불신하였지,

감히 하나님을 불신하지는 않았습니다.

항상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를 불신했습니다.
그를 보내신 자, 하나님은 이미 믿고 왔기에 불신하지 않고
그가 보낸 자를 불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대하는 대로,
그것을 표준으로 두고 심판하십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이 보낸 자를 대하는 대로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낸 자를 쓰고 뜻을 펴셨습니다.
고로, 보낸 자를 불신하고 그와 싸우는 것은
하나님을 그리 대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보낸 자를 불신하는 것은
그를 보내신 자를 불신하는 것으로 보고 심판하셨습니다.

<신약 예수님 때>도 구시대 종교 율법주의자들이
감히 하나님을 불신하지는 않았고
하나님이 보낸 자, 예수님을 불신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어도, 하나님은 모두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를 불신함’은
곧, ‘하나님을 불신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도 그러합니다.

‘보냄 받은 자 불신’은 ‘그를 보내신 자 불신’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믿고 왔기에 불신 안 합니다.
항상 자신들이 ‘하나님, 성령, 예수님’은 절대 믿고 살았기에
감히 불신을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성령, 예수님이 보낸 자는 불신합니다.

그를 불신하면

아무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을 잘 믿어도

뜻을 펼 수 없습니다.

‘보냄 받은 자’를 불신함은

‘그를 보내신 자’를 불신함이기 때문입니다.

고로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도

그들을 통해서는 뜻을 못 펴십니다.

◇ 섭리사에서도 <선생>은 믿습니다.

그러나 선생이 보낸 자를 불신합니다.

그럼 보낸 자를 통해 뜻을 못 펴니다.

고로 심정이 상합니다.

무지 속에 상극입니다. 결국 끊어집니다.

행한 대로, 이같이 심판을 이미 받아 왔습니다.

항상 ‘심판의 기준’은 보낸 자입니다.

그를 표준하여 심판하십니다.

그를 통해 구원 역사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심정을 겪어 봤지요?

자기가 보낸 자는 제2의 자기입니다.

그를 통해 일하려고 하는데, 그를 몰라주면 못 합니다.

그럼 자기를 불신한 것으로 보고 대합니다.

◇ 어느 시대나 하나님이 보낸 자를 대하는 대로 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보낸 자를 자기 육으로 쓰십니다.

그 육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한, 약속한 뜻을 펴시기 때문입니다.
 시대 표상자, 보낸 자에게 고통을 주면,
 그 민족도 그 행위대로 받습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주고, 그 수고가 헛되게 하십니다.

신약 때 예수님을 대한 대로, 그 행한 대로
 지금까지 수천 년을 갚아 주고 계십니다.
 전능자는 말없이 선포하시고
 그 대가를, 빚값을 계속 받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유대 종교인들에게

“아벨 이후 사가랴의 빚값까지 너희가 감당해라.” 했습니다.

(마 23:35)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냐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
 에게 돌아 가리라”

어느 때까지냐고 하니, 하나님은

“보낸 자를 시인하고 돌아와서 용서받고,
 그를 증거하면서 의를 행할 때까지다.” 라고 하셨습니다.

- ◇ 하나님, 성령님, 성자는 전지전능하시사,
 환난이 일어나서 절대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그 사랑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또 어떤 것은 앞날을 이미 아시고 그 전에 기회를 주셨습니다.
 환난이 일어나기 4년 전, 3년 전에 기회를 주셨고,
 어떤 것은 환난 5년 전에 주셨습니다.
 그때 행하게 하셨습니다.
 한 자는 보람을 느끼고 삽니다.

지나고 보면 그때가 소원했던 것의 기회였음을 깨닫게 되고
감사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고로, 지난날을 잊으면 안 됩니다.

주실 때는 은밀하게 행하시니, 받는 자도 모릅니다.

환난이 일어나서 당할 때는 못 주니

환난 전에 이미 아시고 주셨음을,

그 후에 스스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것이 수만 가지인데,

그중의 하나가 방금 말한 대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환난 전에 기회를 줘서

행하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행한 자는 환난 날에도 그로 인해 힘을 받고 기뻐하며 삽니다.

◇ 모두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과거 그때가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은 일점일획까지 하실 것을 다 하시고 역사를 펴 가십니다.

깨닫는 자는 깨닫고 감격하며,

이를 행하신 전능자 하나님, 성령, 성자께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깨닫고 보면 그때가 기회였습니다.

월명동의 돌과 소나무들, 숨겨 둔 희귀종도

눈보라 치는 때라도 때가 되니 성령이 감동을 주어서

그 장소에 가게 하여 보게 하셨습니다.

기회의 때에 깨닫게 하고,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표상자를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의인들에게는 그때그때마다 행할 것을 행하게 하시고,
그 후 환난 날에 깨닫고 감사 감격하며
이를 기적으로 행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그러므로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 ◇ 새벽, 아침 전에 이 나무를 보이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150~200년 동안 만드셨습니다.
둥치 둘레 110cm, 뿌리 둘레 120cm입니다.
사람도 이와 같이 기회의 때에 숨긴 자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은밀히 행하십니다.
이런 술 같은 희귀종 인생들도 그러합니다.

이 나무, 모두 악평한 나무입니다.
이 나무로 인해 모두 서로 욕도 하고
“왜 안 덮냐. 얼어 죽는다.”
“넘어간다. 베어 버려라.” 했습니다.
무지한 자들이 그리 말했습니다.
흙으로 덮으면 하나님 목적을 파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고 보낸 자 통해 밝히시니,
오직 기도만 해야 됩니다.

위치는 ‘하나님 궁전 청기와집 뒤’ 이고,
형상은 ‘개구리 자세’ 입니다.

- ◇ 하나님이 주를 통해 행하신 모든 것을 뺏기지 않으면
사랑이 영원히 갑니다.
그런데 뽼을 받을 때 뺏기니,
절대 완벽히 뽼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사탄은 뽼이 능력입니다. 사람 통해 꺾고, 직접 꺾기도 합니다.
사기꾼도 손해 가게 하는 자라 뽼니다.

뽼에 넘어가 뺏기면
뺏긴 날부터 상실한 것입니다.
<생명의 시대 말씀>도, <사랑>도, <믿음>도
뺏기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의 겹>으로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 ◇ 저마다 하나님의 적, 천적 <사탄>을 멸해야
'천국' 이 됩니다.
<천국>은 '사탄' 을 다 멸하고 가는 곳입니다.

<사탄, 인(人)사탄>과 모두 싸워 이겨야
'천국의 삶' 을 살게 됩니다.
시대 말씀과 주를 절대 믿는 것이 사탄을 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탄을 멸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요한1서 3:8)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
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넘어진 형제들, 시험에 든 자들을 잡아 주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 자기의 <육성>은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으로 스스로 자르고,
기도함으로써 <영성>을 강하게 가져야 합니다.

정신과 생각을 온전히 하고 주와 일체 되어야
선악을 구분하고,
하나님의 이 시대 역사 편에 서서 온전하게 합니다.

◇ <세례요한>을 보면, 주를 증거하고도
이후에 헤롯왕의 이성 문제를 지적하는 무지한 죄를 범했습니다.
예수님이나 계속 증거해야 했습니다.
그 실수로 옥에 갇혀서 고통받으니, 예수님에 대해 실족했습니다.
실수하고, 실족하고, 실망했습니다.

사람들은 잘 증거하고 믿고 좋아하며 좇다가도
환난 때 고통받게 되거나,
일이 잘 안되거나 자기 주관대로 안 되면,
자기가 좇던 자에게 실망하고, 불신하고 악평도 합니다.
어느 때는 세례요한같이 실망도 하고 실족도 합니다.

◇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 시키려고
아픈 자, 약한 자, 모르는 자, 섭섭함을 타는 자 등 모두를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대해 주셨습니다.
섬겨 주고, 위해 주고,
메시아 만왕의 왕이 전심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실망한 것은 <자기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기에,

고통받는 자들뿐 아니라 모두에게 해 줄 만큼 다 해 줍니다.

위해 주고, 섬겨 주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해 줬습니다.

그래도 저마다 목숨 걸고 행치 않으니

자기 주관대로 안 된다고 실망하고 실족한 것입니다.

기대에 어긋난다고 실망한 것입니다.

- ◇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그리고 현재까지
하나님이 보낸 자에 대해 실족한 자들은
스스로 실망하고 운명이 기울어 패한 세계로 갔습니다.
실족하지 않고 절대 믿음에 섰던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승리하였습니다.

- 구약의 <노아>는 하나님에 대해 실족하지 않으니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창 6:8-9)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양심 심판, 홍수 심판 때 자기와 식구들을 구했습니다.

따라가는 자는 절대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노아도 왜 실망스럽지 않았겠습니까.

불순종한 자들을 심판하는 기간에

여덟 식구가 배 안에서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노아는 완전한 자인데

그도 죽지만 앓았지, 같이 고생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다 죽어서 전도하러 안 다녀도 되겠다.

다 죽어서 악평자 비난 안 받고 싸울 자가 없어서 좋겠다.’
했을 것입니다.

(퀴즈)

그리고 또 기뻐하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인지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 답

‘다 죽었으니 이제 아라랏산 밑의 땅은 다 내 것이다.

내가 살기만 살면 편히 살 것이다.’ 했을 것입니다.

노아는 크게 악을 멸해서 기뻐했고,

또 땅을 차지하게 되었으니 기뻐했습니다.

- 구약의 선지자 <엘리아>는

각종 고통과 억울함을 당하는 중에도

하나님에 대해 실족하지 않고 행하니,

우상 숭배자들과의 대결에서 모두 다 이겼습니다.

- <모세 때 애굽에서 나온 자들>은

모세를 보고 실망하고 실족했습니다.

자기들의 잘못을 모세에게 돌렸습니다. 그리고 원망했습니다.

고로, 하나님의 약속을 못 이루고 오히려 심판받았습니다.

모세를 통해

1차로는 애굽 종의 몸에서 벗어나는 구원을 받고,

2차로는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는 구원을 받아야 했는데,

그것을 못 이뤘습니다.

모세가 어찌 다 해 줘니까. 인생, 자기 삶은 자기 책임입니다.
사명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 주면 됩니다.

- <요셉>은 고통받고 억울함을 받아도
하나님에 대해 실족하지 않고
절대 믿고 옥에서 긴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옥에서도 계속 축복해 주어
거기서 만날 자인 ‘왕의 술 맡은 관원장’ 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뤘습니다.
옥에서 나와 왕 앞에 인도를 받고
그 시대 왕의 꿈을 풀어 주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 <다윗 왕>도 그렇게도 사울 왕에게 고통을 받아도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울은 죽고
하나님은 다윗을 계속 축복해 주셔서
40년간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렸습니다.
- 구약의 <선지자들> 모두
절대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고
믿고 행하여서 승리했습니다.
- 예수님 때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받는 것을 봤어도,
자기들이 순교하기 직전까지도 실족하지 않고
예수님을 절대 메시아로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신약 2000년 역사를
당세에 완전하게 해 놓았습니다.

- <이 시대>도 모두

선생으로 인해 절대 실족하지 말고

절대 하나님, 예수님, 성령께도 서운해 말고

어떤 일에도 실족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해야 할 이때, ‘전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자기가 할 사명도 아닌데 선생 문제에 끼어서

헛소문만 키워 내는 자가 있습니다.

모두 행한 대로 받습니다.

자기 일이나 해야 됩니다.

◇ 하나님은 때에 맞춰 다 해 주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뜻을 펴는데 안 하시겠습니까.

실족하지 말아야

계속 새 역사를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이제 잠언으로 말씀해 주겠습니다.

〈잠 언〉

1.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한 시대’에 그 시대 총책, 사명자 ‘한 사람’을 보내신다.
2. 구약시대를 보면, 〈아담〉 때 아담 한 사람, 〈노아〉 때 노아 한

사람,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 한 사람, <요셉> 때 요셉 한 사람, <모세> 때 모세 한 사람, <다윗> 때 다윗 한 사람, <선지자> 시대 때도 시대마다 선지자 한 사람씩 보내시며 뜻을 펴셨다.

3. 신약시대에도 총책, 구원자 한 명을 보냈으며, 그 주관권 안에서 <교황>들이 각 시대마다 나타났고, 루터 시대에는 <루터>가 왔고, 그 후에 또 한 사람 <칼뱅>이 칼뱅 시대에 나타났다.
4. 성약시대에도 총책 한 명을 보내사 하나님께서 구원역사를 펴시고, 그 주관권 안에서 천 년 동안 시대마다 <지도자>들을 보내사 역사를 펴신다.
5. 이와 같이 ‘한 시대에 한 사람의 육신’을 보내신다. 구약시대 ‘모세’, 신약시대 ‘예수님’, 성약시대 ‘한 사람의 구원자’이다. 한 시대에 하나씩 하나님이 보내사, 그를 통해 그 뜻을 펴신다. 확실히 그를 모르면 구원이 이뤄지지 않는다.
6. 자기는 눈도 아닌데 눈 사명 하려고 하고, 귀도 아닌데 귀 사명 하려 한다. 지금은 자기를 만들 때다. 선생이 내 일을 맡기지 않았는데, 전도나 하지 왜 머리 되어 하려 하느냐. 자기 일이나 해야 한다.
7. 구원자가 확실히 누군지 모르고 따라가면 구원받지 못한다. 구원자가 아니면 구원을 못 한다.
8. 가령 <문제>도 하나라면, <답>도 하나다. 그런데 그 문제에 그

답을 못 쓰면 낙방이다.

<시대>가 ‘문제’ 라면, <온 자>는 ‘답’ 이다. 하나님이 보내서 오는 자가 아니면 답을 모른다.

9. 한 시대에 구원자 한 사람이다. 시대도 하나, 머리도 하나다.

10. 세상의 일에서는 구출자가 많다. 어떤 것에는 머리들이 많다.

11. 구원자를 못 따라가면 그 시대 구원은 못 받는다.

12. 신약 때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었다. 예수님을 못 따라간 자는 구원을 못 받았다. 구약과 그 시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왔다. 구약인들 중에서 못 따라온 자들은 신약에 해당되는 구원을 한 명도 못 받았다.

13. 베드로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보고 막연히 ‘선지자인가?’ 했다. ‘사람들이 말하는 엘리야 같은 선지자인가? 혹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인가?’ 했다.

그러나 예수님이 물었을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어 ‘메시아, 구세주’, 구약에서 예언한 ‘오리라 한 주’ 이신 줄 알았다. 그 때부터 말씀 듣고 행하여 온전한 신약권 구원이 이루어졌다.

14. 천국에 가서 보니, 베드로와 제자들은 구원받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주를 모르고 믿으면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 선지자로 믿으면 선지자급의 구원, 메시아로 알고 믿으면 메시아 주관권의 구원이

다.

15. 온전히 알지 못하면 온전한 구원은 받지 못한다.
16. 회교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안다. 믿고 따르지도 않는다. 그들이 믿는 자는 아브라함이 종을 통해 낳은 자의 후손, 마호메트이다. 그를 최고의 선지자로 믿고 섬긴다. 자신이 믿는 자가 선지자이니, 그대로 예수님도 선지자로만 인정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17. 항상 구시대보다 새 시대는 한 단계 더 높여 구원역사를 펴고 대해 주신다. 구약은 종급, 신약은 자녀급, 성약은 사랑의 대상, 신부급으로 대하고 뜻을 펴시며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신다.
18. 시대는 문제, 시대에 보낸 자는 답이다. 그가 와야 그 시대 문제를 풀어 주시고, 뜻을 펴서 구원하신다. 시대에 따라 영이 형성되어, 거기에 해당되는 천국의 세계로 간다.
19. 구시대의 문제는 새 시대에 풀어 이룬다. 구시대는 새 시대를 맞아야 답을 안다. 구시대 신약에서 예수님이 한다고 예언한 성구들을 읽어 보라. 새 시대, 이 시대에서 다 행했다.
20. 세상의 존재물들도 그 생긴 대로, 형성된 대로 구분하여 대한다. 작은 것은 작게 취급, 큰 것은 크게 취급을 하고, 그 위치도 다르다. 집을 지어도 기둥은 크니 큰 위치에 쓰고, 작은 것은 작은 위치에 쓴다.

21. 영들도 형성된 대로 그 위치로 간다.

〈구약시대〉 종급으로 형성된 영들은 그 위치로 가고, 〈신약시대〉 자녀급으로 형성된 영들은 자녀급 천국으로 가고, 〈성약시대〉 신부급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형성된 영들은 그 위치인 황금 천국으로 간다. 그 영광이 형성된 대로 다르다.

22. 월명동 한자리에 쌓은 돌들도 크고 작고, 그 위치도 다르고, 각각 받는 영광도 다르다.

23. 각 지체들은 자기 존재대로만 하려고 한다. 〈귀〉는 들으려고만 하고, 〈눈〉은 보려고만 하고, 〈입〉은 말만 하려고 하거나 먹으려고만 한다. 이 외에 다른 각 지체들도 자기가 존재하는 대로 만족을 얻으려 한다.

머리가 제대로 다스려야 한다. 그냥 두면, 자기 주관의 지체가 된다.

24. 이와 같이 〈육〉은 육만 위해 하려고 하고, 〈영〉은 영만 위해 하려고 하고, 〈혼〉은 혼만 위해 하려고 한다.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주의 말씀으로 절대 잡고 다스리며 살아야 된다. ‘영원한 것’을 위해 해야 된다.

25. 하나님은 우주와 이 지구를 만들고 만물을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돕고, 주가 돕고, 성령이 돕는다.

인간은 그 값을 100분의 1도 못 하고 죽는다. 하나님께 그 값

을 어떻게 하느냐고 하니, “구원받은 자들이 나 하나님의 나라에 와서 영원토록 섬기고 사랑하고 살면 그 값이 된다.” 하셨습니다.

26. 저마다 이 땅에 살 때, 전능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그 사랑의 대상이 되어 살면서 그 값을 해야 된다.

27. 하나님과 주를 사랑하고 살면서 천적 마귀들, 인(人)사탄들을 완전히 소멸하고 살아야 된다. 주는 마귀를 멸하려 오신다.

잠언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 오늘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말아라.”

즉, ‘실망하지 말아라.’ 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이니 더 잘되게 하시려고

항상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십니다.

절대 믿고 행함이 절대 영원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높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행하시니

절대 낙심하지 말고, 실족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선생이 못해도 항상 하나님이 선생을 통해 행하십니다.

선생 모르게 이미 내 몸을 가지고 행하여 오시기도 했습니다.

절대 하나님 마음에 들게, 100% 믿어 드려야 합니다.

그리 행하고, 그릇되게 인식하지 말아야 합니다.

◎ 주 하나님과 성령의 사랑과
주 예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마쳤습니다.)